

국회부의장(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29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박상혁 · 김기표 · 김남근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김현정 · 문금주 · 문진석
박용갑 · 박홍배 · 백승아
안태준 · 윤종균 · 이기현
이성윤 · 이용우 · 이주희
이훈기 · 전진숙 · 조인철
채현일 · 허영의원
(23인)

주 문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등 국회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지속적으로 방기하였음. 2024년 7월 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등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음. 심지어 자당인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실시한 무제한토론 조차 사회를 거부하며 명분도 원칙도 없는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였음.

국회부의장 주호영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의 일원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을 넘어 정쟁적 의도를 갖고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자, 무제한토론 제도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 운영의 폐단을 초래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바, 국회부의장 주호영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회부의장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주호영은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 만인 2024년 7월 25일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 표명문’을 발표하며 본회의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한데 이어 2025년 정기회와 12월 임시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사회를 거부하였음. 이는 「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것임.

나. 특히,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2025년 8월 임시회에서의 일부 무제한토론 사회를 제외하고, 본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마저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며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 모습만 보임.

다. 갈등을 중재하고, 대립을 최소화하며 국회 운영을 이끌어야 할

책임자가 되려 갈등을 양산하고, 대립을 부추긴 것으로 국회부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비겁함을 넘어 의도적인 국회파행을 유도한 것으로써 스스로 국회부의장 자격을 부정한 것임.

라. 국회부의장 주호영의 무제한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신의마저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임. 또한, 국민의힘은 절차와 중립을 주장하며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주호영의 기본적인 의사 진행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24조(선서)와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 품위를 실추시켰음.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있음.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국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국회부의장 주호영의 사퇴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함. 이에 국회부의장 주호영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함.